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급물살… “생태계 훼손·부작용 우려”

공정위·국회, 특별법 제정 나서
학계, 강제적 규제 독 될 수 있어
정책보다 자생력 키우는 방식 제안

통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대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중개수수료 상한을 두는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기관, 정치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



수수료 상한제 특별법을 통해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모습. /인공지능 생성 그림

음 달 9일 전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에 법적 상한을 두겠다는 것이 골자다. 규제의 칼끝은 업계 양대 산맥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중론

을 제기하고 있다. 강제적인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법을 두고 “온플법이 경기장을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규칙이라면, 특별법은 선수 개개인에게 규칙을 부과하는 형태”라고 비유했다. 그는 “온플법은 통상 마찰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특별법 역시 ‘수수료’라는 단어

에만 너무 매몰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단기적인 정책 효과는 있겠지만 그 후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태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와 오히려 보호하려던 소상공인에게 더욱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제적인 가격 제한보다는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를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플랫폼이 자발적인 소상공인 우대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희 교수는 배달 시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닌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은 일방향이 아닌 상호 작용하는 순환 구조”라며 “인위적인 개입은 이미 형성된 배달 생태계의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성희 교수는 “소상공인, 플랫폼, 라이더, 소비자가 얹힌 구조를 고려해 플랫폼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모델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등으로 각 플레이어의 역량을 키우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부작용을 검토해 확대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가 오히려 독과점을 고착화하며 해외 자본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공정한 유통생태계를 위한 플랫폼 정책 방향’ 포럼에서 산업계 대표로 참석한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본부장은 “현재 운영 중인 땀겨요와 같은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도 약 20% 수준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국내 수수료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치권 논의대로 10~15% 수준의 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이미 막대한 적자를 감내하며 경쟁 중인 업계 2, 3위 기업들은 적자 폭이 심화되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임상 3상 사후분석 공개

학술지 ‘임상 위장병학 간장학’ 게재
크론병 환자 대상 ‘LIBERTY-CD’ 결과
모든 염증 부위서 일관된 치료 효과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사후분석 결과가 국제학술지 ‘임상 위장병학 간장학’에 게재됐다고 26일 밝혔다.

짐펜트라는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SC) 제형 바이오 의약품이다. 이번 발표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LIBERTY-CD’ 임상의 사후분석 결과다.

LIBERTY-CD 임상은 중등도·중증 활성 크론병 환자에서 위약 대비 인플릭시맙 SC 유지치료의 약효 우월성을 확인했다. 이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위별(소장, 대장 등 장기), 분절별(회장 말단, 좌측 결장, 수평 결장,



짐펜트라. /셀트리온

우측 결장, 직장 등 장의 특정 부분) 치료 반응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은 염증 위치에 따라 소장형, 대장형 등으로 구분하며, 이중 소장형은 대장형 대비 상대적으로 진단이 어렵다. 특히 천공, 협착 등 흔히 발생하는 등 질병 증상이나 진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 약물요법 치료에 대해서도 부위별로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사후분석에서는 인플릭시맙 SC 유지 치료를 1년간 진행한 환자군이 염증 부위와 무관하게 위약 대비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소장형이나 회장 말단부터 결장, 직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염증 부위에서 일관된 치료 효과를 보였다. 부위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기존 크론병 치료제들과 차별화되는 결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향후 짐펜트라의 치료 전략과 치료제 처방 선택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염증 발생 부위와 상관없이 일관된 치료효과를 나타냄으로써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미 입증된 투여 편의성과 뛰어난 치료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처방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아쏘시오홀딩스, 중대재해 대응훈련 실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체험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5일 서울 동대문구 본사 O동 WINGS(윙스)에서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본사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DA인포메이션, 동아오츠카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구성원의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동대문소방서가 훈련을 진행해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며 응급 처치 능력을 학습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서울 동대문구 본사 지역에 근무하는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 대상으로 중대재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훈련으로 임직원과 협력사 근로자 모두가 책임감 있는 안전문화를 체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CU·GS25 편의점서 ‘오쏘몰 이문 1일분’ 선배

동아제약은 국내 편의점 CU와 GS25에서 이중제형 멀티비타민 ‘오쏘몰 이문 1일분’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쏘몰 이문 1일분은 면역기능과 기초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 총 18가지 영양성분 중 14종을 액상에 담아낸 고농축 제품이다. 비타민C, 아연 등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지원한다.

오쏘몰은 독일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로 동아제약은 지난 2020년 오쏘몰을 국내 정식 도입했다. 동아제약은 백화점 플래그십 스토어, 올리브영 등에 이어 편의점까지 판매망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확대 전략을 강화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규제기관 승인 400건 확보

디지털 기반 품질 관리 체계
규제 대응 표준화 등 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 400건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49건, 유럽의약품청(EMA) 46건을 포함해 전세계 다수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총 400건의 제조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0건 달성 이후 불과 1년 만에 100건을 추가로 획득한 성과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 확장과 생산제품 증가에 따라 제조 승인 트랙레코드를 빠르게 축적해 규제기관 심사 통과율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규제 기관의 제조 승인은 의약품 허가 과정 중 일부 절차다. 해당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전 과정이 각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생산한 의약품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제품 단위로 수십 명의 전문 인력과 수개월에 걸친 검증이 필요해 CDMO 기업의 품질·운영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유럽 등 까다로운 글로벌 규제기관 실사에도 안정적으로 제조 승인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기반 품질 관리 체계 ▲규제 대응 표준화 등이 꼽힌다. /이청하 기자

광동제약, ‘ESG 베스트 100대기업’ 선정

중견기업 그룹 중 27위 기록

광동제약은 서스틴베스트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ESG 베스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주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과 기회 발굴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등급을 부여한다.

광동제약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전체 영역에서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고 ESG 기반의 의사결정을 강화해 평가기준에 충실히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광동제약은 자산 5000억~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 그룹 가운데 27위를 기록하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환경경영·사회공헌 리포트 발간, 환경정보공개제도 참여 등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폭을 넓힌 활동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광동제약의 ESG 경쟁력은 다른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평가에서 통합B등급을 받았으며, 환경(E)·사회(S) 부문에서는 모두 A등급을 획득했다. 기업 홈페이지 내 ESG 섹터 신설, 이해관계자 소통 기반 강화 등 ESG 인프라 구축 노력도 평가 요소로 작용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회사가 꾸준히 고도화해 온 ESG 경영 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통해 입증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